

KIA 팬은 울고 싶다

관중 66만3430명 전년비 41% ↑
11차례 원정 매진·시청률도 1위
성적 부진에도 아낌없는 응원
3년째 가을야구 구경꾼 신세



KIA 팬들은 울고 싶다. 뜨거운 팬심의 결과는 구려진 자존심과 허탈함이었다. 올 시즌에도 KIA 팬들은 명성에 맞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줬다. 올해 역시 승(54)보다 패(74)가 많았지만 팬들은 열정적으로 경기장을 찾아 타이거즈를 외쳤다.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관중은 66만3430명으로 지난해 관중 47만526명을 훨씬 넘어섰다. 평균관중도 7352명에서 1만366명으로 뛰어올랐다. 새 구장 효과까지 더해 8위 팀 팬들은 관중 증가율(41%) 1위 자리에 올랐다. 원정길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대로 된 순위싸움 한번 하지 못했지만 팬들은 예매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11차례 원정 매진을 이루며 팀의 자존심을 세워줬다. 시청률 1위 자리도 KIA 팬들의 몫이었다. 미디어어포코리아에서 분석한 2014 프로야구 정규시즌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8위' KIA는 1.27317%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4승12패로 그라운드에서는

이기지 못한 '1위' 삼성(1.24223%·3위)을 상대로 거둔 팬들의 승리라면 승이다. 2위는 롯데(1.24685%), 4위는 LG(1.06222%)가 차지했다. 관중 증가율, 시청률에서 1위를 찍으며 팬들은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줬지만 구단과 선수단은 이에 응답하지 못했다. 2014 시즌 가을은 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

습이다. 퇴보한 마운드와 끈기 없는 타선, 리더십 부재 속 위기 관리에 실패한 벤치 탓에 2년 연속 8위로 일찍 시즌이 마감됐다. 시즌 마지막까지 1·4위 싸움이 전개됐지만 뒷전에서 밀려난 KIA는 이번에도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 선동열 감독의 재계약 소식도 팬들에게는 잔인했다. 냉정한 프로세계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 타구단

수장들이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리빌딩'이라는 허탈한 목표 아래 KIA는 실패한 3년에서 이어 2년의 기약없는 약속을 했다. 성적도 내지 못했고 '성적 탕'에 팬들이 누리지 못한 소소한 즐거움과 이벤트도 있다. 거침없는 추락과 함께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유로 올 시즌에도 울드 유니폼데이는 없던 일이 됐고, 지난 16일 미

'아기 호랑이' 입소식 생략하고
김상훈·유동훈 은퇴식 연기
25일 '팬 미팅' 열기도 미지근
감독 재계약 소식에 '부글부글'

래의 '아기 호랑이'들이 챔피언스 필드에 입소했지만 그라운드에서 정식 인사를 올릴 이벤트는 마련되지 않았다. 한화·롯데·두산·넥센 등이 그라운드에서 신인 선수들을 소개하고 입단식을 가진 것과 대조적이다. 그라운드와의 작별을 고한 포수 김상훈·투수 유동훈의 은퇴식도 '성적 탕'에 내년으로 미뤄졌다. "좋은 분위기에서 더 많은 팬들과 만나고 싶다"는 주인공들의 바람이 있었다.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팬 미팅 자리인 '호랑이 한마당'도 격정이다. 서운했던 성적에 감독 재계약 논란으로 잔치의 흥이 떨어졌다. 군입대를 앞둔 안지홍이 팬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광주로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팬들이 기다리는 선 감독의 참여여부는 미지근하다. 들끓는 팬심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적도 내지 못했고 팬들의 마음을 달래 줄 이벤트와 미래도 내세우지 못한 KIA. 팬들은 울고 싶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두산감독 김태형

22년간 주전 포수·배터리 코치 활약

까지는 팀의 주장을 맡아 매해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은퇴 후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두산에서 배터리 코치를 맡았다. 김 감독은 배터리 코치를 담당하던 2011년 시즌 중에 현 NC 감독인 김경문 전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뒤 두산의 차기 사령탑 물망에 올랐었다. 하지만 두산이 당시 김진욱 2군 투수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SK에 새동지를 틀었다. 두산은 "오랫동안 두산에 몸담아 팀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야구를 추구하는 지도자로 근래 퇴색된 두산 베어스의 팀 컬러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이끈 김진욱 감독을 경질하고 송일수 감독과 3년 계약을 했던 두산은 한 시즌만에 성적 부진으로 사령탑을 교체하게 됐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송일수 감독을 경질하고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의 김태형(47) SK와이브스 배터리 코치를 제10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김태형 감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원 등 총 7억원에 사인했다. 김 선임 감독은 1990년 두산의 전신인 OB에 입단해 2011년까지 22년간 주전 포수와 배터리 코치로 활약했다. 2001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827경기를 뛰면서 타율 0.235를 기록했다. 선수 시절 뛰어난 리드와 영리한 플레이로 1995년과 2001년에는 한국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탰다. 1998년부터 2000년

5·6위팀 감독난제

SK감독 김용희

2011~2013 SK 2군 감독 맡아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지휘봉을 김용희(59) 감독이 물려받는다. SK는 21일 김용희의 육성총괄을 2년간 계약금 3억원과 연봉 3억원 등 총액 9억원의 조건으로 제5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1982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한 프로야구 원년 스타 출신이다. 1983년 홈런 3위(18개)에 오르는 등 스타 선수로 활약한 김 감독은 1989년 플레이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롯데(1994~1998년), 삼성(2000년)에서 사령탑 경험을 두루 쌓았다. 2006년 롯데 2군 감독을 지낸 뒤 잠시 해설자로 활약한 그는 2011~2013년 SK 2군 감독을 맡았고, 올해는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구단의 방침에 따라 육성·스카우트를 통합 관리하는 육성 총괄을 지냈다. 2007년부터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랐다가 지난 2년간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SK는 "선수단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구단이 추구하는 시스템 야구와 팀 정체성을 선수단에 접목하기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김 감독의 선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3년간 2군 감독과 육성총괄을 맡아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 영광스러우면서도 강하고 오래가는 좋은 팀을 만들어야 할 책임감도 무겁게 느낀다"며 "SK가 올 시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해 팬들께 감동을 선사했는데, 인천 팬들이 원하는 야구와 가슴으로 뛰는 야구를 하겠다"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체인지업 주무기로 내년엔 200이닝 던질 것”

금의환향 류현진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향한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일찌감치 2015 시즌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부상을 줄이고, 주 무기로 체인지업의 위력을 높이겠다”는 게 류현진의 각오다. 류현진은 21일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상이 세 차례 있었지만 부상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에는 만족한다”면서도 “하지만 (두 차례 부상을 당한)왼쪽 어깨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훈련도 지난해보다 빨리 시작하고, 부상 방지 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올해 정규시즌 26경기에서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했고, 포스트시즌에서는 한 차례(7일 NLDS 3차전) 나서 6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 정규시즌 30경기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 포스트시즌 2경기 1승 평균자책점 3.60(10이닝 9피안타 4실점)과 비슷한 결과다. 류현진은 견고한 투구로 다저스의 확실한 3선발로 자리

“3차례 조기 강판 있었지만 만족
부상방지 주력...훈련 일찍 시작”
자선활동 등 3개월간 한국 체류

매김했다. 체인지업으로 주목받던 그가 고속 슬라이더로 다시 주목받는 장면도 있었다. 그러나 에이스의 기준인 15승 달성,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한국인 최다승(18승) 경신이 부상상으로 좌절된 점은 아쉽다. 류현진은 “체인지업이 피안타로 많이 연결됐고, 조기 강판당한 경기(5이닝 미만 3차례)도 많았다”고 올 시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류현진이 2015년 목표로 내세운 건 200이닝이다. 류현진은 “지난해보다 무실점 경기(올해 6경기, 2013년 1경기)가 늘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이닝(152이닝)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 올해 느꼈던 아쉬운 점을 비시즌 훈련 기간에 잘 다듬어서 내년에는 200

이닝을 채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류현진은 몸 상태만 좋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슬라이더 구수를 높여 효과를 보긴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구종은 아니었다. 현재 내가 가진 구종을 더 다듬는 데 주력하겠다”며 “체인지업을 다시 주 무기로 가다듬겠다”고 다짐했다. 류현진은 한국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며 가족·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선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